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16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회 관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으며 특히 계급교양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선종합훈련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어뢰 돌격훈련을 비롯한 여러가지 훈련을 보시면서 전투정치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부대싸움준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교리와 주제적인 해상 전법을 정확히 활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년전에 벌써 만능해병은

동을 벌릴데 대한 발기를 하시였다고 하시면서 해병들속에서 여러가지 전문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여 그들을 만능해병, 바다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실내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전투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훈련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앞선 훈련방법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훈련기재들을 싸움의 견지에서 장안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이 실천과 같은 정황속에서 해상전투조직과 지휘능력, 함운술을 더 깊이 터득하도록 하는데 품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병들이 매일 급식하게 될 콩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게 콩창고를 특색 있게 꾸려놓은것을 보시고 해군부대들을 돌아보면 어디서나 이런 풍경

을 볼수 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어뢰 돌격훈련을 보시고 지휘관들은 늘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잊지 말고 해병들에게 풍성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제해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명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기본근거로 들어주시고나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무슨 일에서나 종자를 찾아내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야 최단기간에 최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도 훌륭한 결실을 맺자면 종자를 들어주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기본핵, 중심교리를 밝힌 고귀한 지침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자면 당과 혁명대오의 하나의 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하는것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근본요구자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통하여 실현될수 있기때문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핵심이다. 사상적의 조리에 차려놓은 갖가지 음식감들을 보시고 지휘관들은 늘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잊지 말고 해병들에게 풍성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유해에 진행한 식수정형도 알아보고 양묘장을 잘 꾸리고 나무심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주변은 물론 주둔지역을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머지않아 봄철영농전투가 시작되는데 군부대에서 농촌지원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이 사업은 군민관계를 개선하고 군민일치의 미풍을 더 높여 발휘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164군부대를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군부대가 싸움준비와 부대지휘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제164군부대의 해병들은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어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더욱 억세게 준비하여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주체의 영원한 태양

태양절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인터넷에 특집

태양절에 즈음하여 핀란드에서는 경축모임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영화감상회가 3월 26일에 진행되였다. 모인 장소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모인 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원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그리고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였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선군명도 업적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가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태양절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명절이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을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조선혁명뿐 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이다.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테리아 구공장장 지베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선군명도 조건의 해방을 안아오시였다. 임실단결로 필승불패하고 자위로 굳건하며 세 세계 산업혁명으로 부강번영해나가는 조선의 미래는 김정은명도자를 모시여 더욱 찬란하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경축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 태양절에 즈음하여 3월 24일

【조선중앙통신】

전승의 축포성은 군자리에 새겨진 위대한 업적 길이 전한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옛 전초의 잔포도 삭고 포화속을 헤치던 애끓던 병사들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없게였다.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하던 우리의 겨리와 마음들을 한층이 거침없게 되었고 애끓는 가슴이 호른 오늘에도 전진군수생선의 그 나날을 생동하게 말하며 주며 옛 모습대로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국방사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응축고수하며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인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엔 선차적인 힘을 불어넣어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군자리,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자들의 정수리에 불소나기를 쏟아붓는 무기들을 그칠새없이 만들어내던 자위의 병기고.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력사가 자욱자욱 새겨져있고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회상적인 헌신이 눈물겹게 안겨있는 력사의 증거자.

금시라도 떨어질듯 한 안판들이 머리위에 낮게 드리운 어두운 강도, 석수가 똑똑 떨어지고 피와 땀, 화약과 습기에 젖은 강도길을 걸노라면 우리 수령님께서 이런 험한 곳을 걸으시였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친다. 금시라도 세찬 동풍을 올릴듯 한 운기도는 기계들을 보고 당장이라도 복수의 불을 토할듯 한 박격포들과 기관단총들을 보노라면 군수로동계급에게 필승의 신념을 굳혀주시던 수령님의 영상이 뚜렷이 안겨온다.

혁명의 용사대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행복도 강력한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총대주의사상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철의 단력과 의지에 의하여 우리는 당시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몇 나라에서만 만났고였던 기관단총의 기동성으로 국방공업발전의 큰걸음을 내걸게 되였다. 언제나 군수를 중시하시고 국방공업발전엔 선차적인 힘을 넣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군수공업은 가속한 전진환경속에서도 병기생선의 불길은 더욱 세하게 지퍼올려 줄기찬 열매의 결을 거머쥘수 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우리에게 포탄을 보내주시시오라고 웨치던 병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심중에 되새기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오르신 군자리 하강도의 비좁은 수직사다리, 울러다보던 눈시 앞만이 무너져내릴것 같아 눈앞이 아찔해지고 만드니 갈아 넣어 심하게 흔들렸으며 떨어지는 석수로 하여 손잡이와 발판이 몹시 미끈거리는 수직사다리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실수 없어 일군들은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일군들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늘 오르내리는 사다리인데 왜 나라고 못 오르겠는가 하시면서 제일먼저 오르시였다. 한탄한단 오늘수록 희박한 공기중에 숨이 차오르고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이런 사다리를 오르시며 병기생산전투를 지도하여주시였으며 더 많은 총포탄을 싸우는 전선에 보내주기 위하여 바치오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와 헌신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없는가.

전화의 불비속을 헤치시고 군자리의 지하병기공장을 거둬 찾으시며 적들은 동무들이 만든 기관단총을 보지만 하여도 손을 드는다고, 기관단총으로 인민군대를 다 무장시키면 더 많은 적을 잡을수 있다고 하시며 군인들의 전투행동을 지장이 없게 기관단총을 집중으로 만들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

지난날 우리 조상들은 황새대조차 변변히 만들지 못하다보니 일제침략

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전제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총을 다 매워주지 못하였기때문에 후퇴라는 가슴아픈 력사를 남겨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력사적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시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응성이 오늘도 귀전에 생생히 들려온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만 무기를 만드는것이 아니라, 무장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시를 오늘도 귀전에 생생히 들려온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강철의 의지는 군자리로동계급이 결사의 투지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신 신념의 기둥이였다.

군자리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겨안고 《마지막 생명을 다하여 우리 조국의 총도를 수호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내걸고 기대없이 침식을 해가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정전 이후 때면 화불을 추켜들고 선반의 피대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부속 물가품을 계속하고 손바닥에 고집이 생기고 그 물질이 터져서 피가 흘러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그들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이 공장까지로 쳐들어오고있던 때에도 결사대를 묶고 손으로 선반의 피대를 둘러서서 700정의 기관단총을 긴급생산할때에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명령을 결사 관철하였다. 자재가 떨어지면 눈보라길을 헤치면서 하루밤사이로 100리길을 걸어가 등짐으로 날라와 생산을 보장하고 폭약이 떨어지면 시한탄과 불발탄을 해체하여 부속되는 폭약을 보충하며 병기생산을 주선 위대한 수령님. 작업장의 시계바늘을 꺼꾸로 돌려 놓으면서까지 24시간 고대없이 일

하고 밀려드는 잠을 이겨내기 위해 눈에 나무포뎃이를 뺀채놓고 기계를 돌린 정신력의 강자를, 밤낮은 시간도 아까와 한층 후추머니엔 통강냉이알을, 다른 후추머니엔 소금을 넣고 깨내일으며 수류탄을 조민한 불꽃의 인간들, 5분이 멀다하게 진행하는 시한시계도 고막이 터졌지만 총을 놓지 않고 좁은 강도안에 딱 찬 활약가로 하여 사격수가 앓을 가려와도 끄떡이 못하게 되자 신발을 벗어 불뭉치를 만들어들고 목표관 옆에서 《나를 향해 쏴라!》고 웨친 불사신의 영웅들이 이였다.

수입하던 배양이 떨어져 기계가 멈춰서면 못쓰게 된 배양기를 재쟁하여 기계를 돌리고 외국의 붓나무로만 총포품을 만들수 있다는 기성관념을 깨뜨리고 우리 나라에 흔한 피나무와 쇠스레나무로 총포품을 만들며 침략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던지던 우리의 무기들을 만들어낸 자력갱생의 용사들이 바로 군자리로동계급이였다.

세계《희망》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신 이 땅의 영웅무명의 고지들의 위에는 군자리의 지하병기공장이 있었고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세운 불멸의 위훈의 밀바람에는 군자리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정신도 자리잡고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전화의 그날에 벌써 승리의 매일을 내다보시며 앞으로 전쟁이 끝날도 조국이 통일되면 공장의 로동계급이 전시기생산을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이 글에 박물관을 꾸려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에게 다 보여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전쟁의 포성이 멎어 세월이 멀리 흐른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을 이가시던 우리 수령님께서선 성천군의 어느 한 고개마루에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윽도록 산고개를 추연한 빛으로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선 여기가 백전백승이라고 하시며 이 고개를 지날 때만 군수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전쟁시기 고생스럽던 말 한마디없이 기관단총과 박격포를

라 뜻깊이 걸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 온 사회의 일상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오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는 본체에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유훈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령도체계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시대로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들어주고 끊임없이 심화시켜 당과 혁명대오를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규율이 지배하는 불멸의 통일체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그러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찬탄과 찬미가 절로같이 솟아나고 단결의 위력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채철룡

이런 끝안에서 자체로 무기를 만들어 미寇놈의 코드를 썰어놓았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은 아마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참으로 군수공업로동계급은 지난 전쟁 때 고지에서 싸운 인민군용사들 못지않게 잘 싸웠다. 조국해방전쟁승리에 이바지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업적은 조국전쟁에 길이 빛날것이다. 그 높은 평가하선 위대한 장군님, 선군혁명전만리길을 이어오시며 전진군수로동계급이 발휘한 영웅적인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혁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군자리정신이 대를 이어 꽃피기 위하여 참초노생명을 다 바친 이 나라 아들딸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그 누구도 걸아보지 못한 험난한 선군혁명의 길을 이어오시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천만시련과 고생을 다 이겨내시며 후손대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이시이다.

군자리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업적을 길이 빛내어주시고 군자리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빛나게 계승되도록 이끌어주시는 선군령장이 위대한 장군님 이시였다.

선군혁명명도의 길에서 군자리의 지하강도를 찾아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석수가 떨어지고 언제 막바지고 있었는지 모르는 어둡침침한 곳에 어려리쳐 찾아오시어 전시기생산을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이 글에 박물관을 꾸려 후대교양의 전당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모소 사적지건설을 발기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어 군자리의 지하병기공장을 전시기의 모습 그대로 꾸리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군자리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명도와 불멸의 업적이 후손대대에 빛나게 되였다.

본사기자 정선철